

# 20대 청년 노동시장 동향분석

정 성 미\*

## I. 머리말

‘청년실업 심각’, ‘청년 고용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은 이미 정형화된 사실로 보는 경향이 있다. OECD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낮은 국가그룹에 속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간 지속되어온 저고용률, 고실업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충격은 평상시에도 바늘구멍만큼이나 어렵다는 취업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어 졸업 후 신규취업을 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불황에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단기 일자리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는 기사들이 줄이어 나오고, 관련 지표들도 호전세를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발맞추어 2009년 크게 감소했던 취업자는 증가세로 돌아서 증가폭이 빠르게 커지고 실업률도 예년의 추이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대 청년 실업률은 2010년 3월 8.4%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20대에서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선 현재,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20~29세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 II. 20대 청년 노동시장의 최근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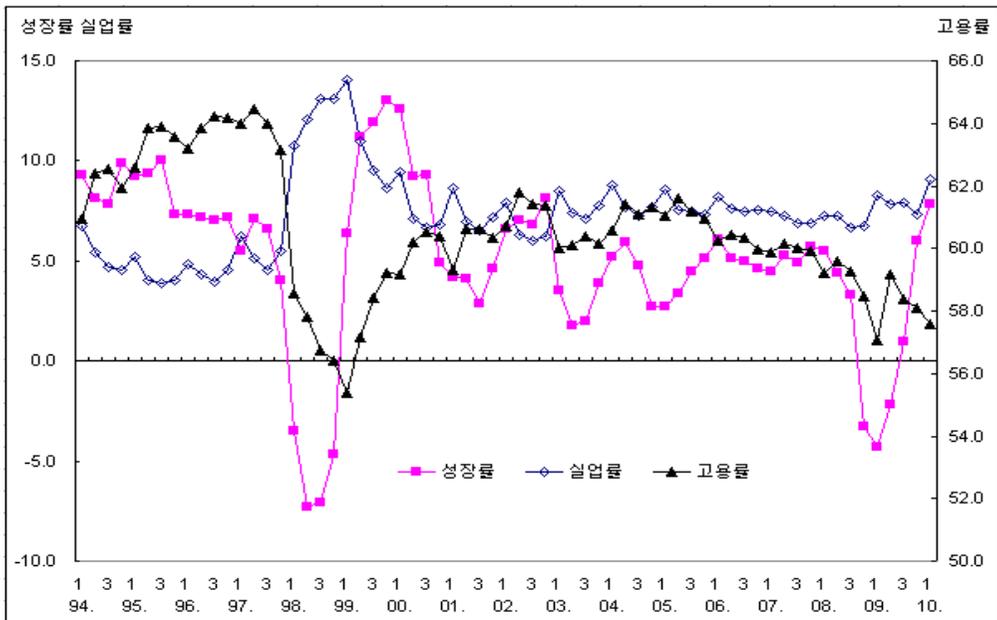
### 1. 위기 이후 경기회복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특징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충격을 받은 20대(20~29세)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은 과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양상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경기회복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양상은 IMF 경제위기 이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IMF 경제위기의 충격을 받기 이전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64%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실업률은 5%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용률이 급감하고 실업률은 1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후 경기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용률은 증가세로 돌아서 증가 추세를 이어갔고, 실업률도 감소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시기에

[그림 1] 청년층(20~29세)의 성장률, 실업률,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장기간 60% 내외를, 실업률은 7% 수준으로 증가한 이후 장기간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05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고용률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파르게 감소하여 57%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게 소폭 증가하여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 청년층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던 것에 대비된다. 이후 경기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용률은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 외환위기 이후와는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더욱 증가해 2010년 1/4분기 9.1%까지 증가했다.

## 2. 청년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

2010년 들어 성장률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경기침체에 악화되었던 고용사정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국면에도 20대(20~29세)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별다른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률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57.6%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한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 2009년 1/4분기보다 41천 명이 감소하여 3,700천 명에 그쳤다.

한편, 7% 수준에서 하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2009년 1/4분기에 8.3%를 기록하였으며, 경기회복국면인 2010년 1/4분기에도 9.1%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2010년 1/4분기에는 소폭 하락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취업자수의 요인분해<sup>1)</sup>를 통해 취업자 변동에 미치는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자. [그림 2]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률의 변화를 보면 200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9년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하여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0년 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1)  $E = P \times \frac{L}{P} \times \frac{E}{L} \Rightarrow \dot{E} = \dot{P} + \left(\frac{\dot{L}}{P}\right) + \left(\frac{\dot{E}}{L}\right)$  (P: 생산가능인구, L: 경제활동인구, E: 취업자, ' : 증가율)

〈표 1〉 청년층(20~29세)의 최근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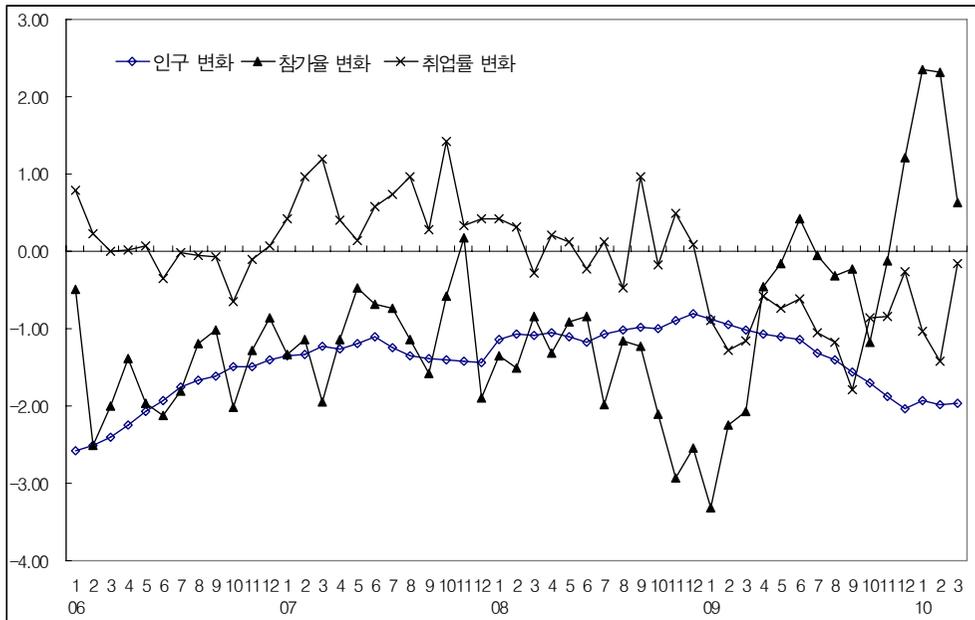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6	2007	2008	2009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생산가능인구	6,741	6,653	6,584	6,496	6,689	6,616	6,553	6,425
(증가율)	(-1.9)	(-1.3)	(-1.0)	(-1.3)	(-1.3)	(-1.1)	(-0.9)	(-2.0)
경제활동인구	4,401	4,298	4,187	4,101	4,327	4,227	4,080	4,071
(증가율)	(-3.5)	(-2.3)	(-2.6)	(-2.0)	(-2.7)	(-2.3)	(-3.5)	(-0.2)
경제활동참가율	65.3	64.6	63.6	63.1	64.7	63.9	62.3	63.4
취업자	4,061	3,992	3,894	3,779	4,005	3,919	3,741	3,700
(증가율)	(-3.5)	(-1.7)	(-2.4)	(-3.0)	(-1.9)	(-2.2)	(-4.5)	(-1.1)
(증가수)	(-146)	(-69)	(-98)	(-115)	(-79)	(-87)	(-178)	(-41)
고용률	60.2	60.0	59.1	58.2	59.9	59.2	57.1	57.6
실업자	340	306	293	322	322	308	339	371
실업률	7.7	7.1	7.0	7.9	7.4	7.3	8.3	9.1
비경제활동인구	2,340	2,355	2,397	2,395	2,362	2,389	2,474	2,354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과 증가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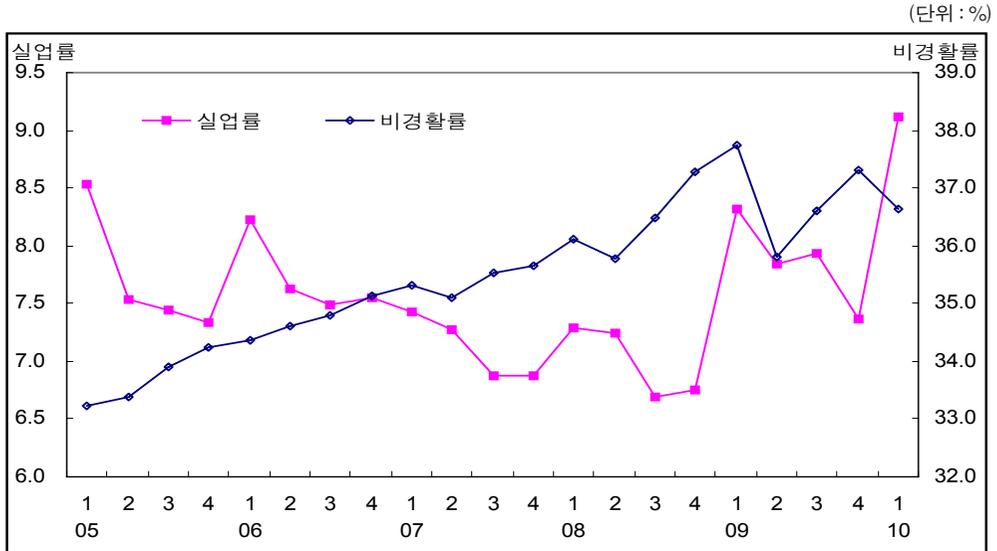
〈그림 2〉 20대 청년층의 인구 변화, 참가율 변화,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주: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주: 1) 분기자료임. 2) 비경제활동률=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009년 이후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새로운 특징은 실업률의 급증이라 할 수 있다.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청년층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1분기에는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활발한 시기적 특징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1분기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임에 틀림없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던 비경제활동률(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동시장 밖에 머물던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효과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 제시된 20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비경제활동 사유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이 2009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신규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를 포기해 ‘그냥 쉽’의 비중이 늘고 취업준비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즉, 노동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해야 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으로 진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취업준비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냥 쉽’의 비중이 예년의 추세로 감소했다. 졸업·중퇴자로 제한하고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참조). 이는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준비나 실업자의 형태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2009년에 감소폭이 워낙 컸던 만큼 기저효과의 영향에 기입하는 바가 크다.

〈표 2〉 20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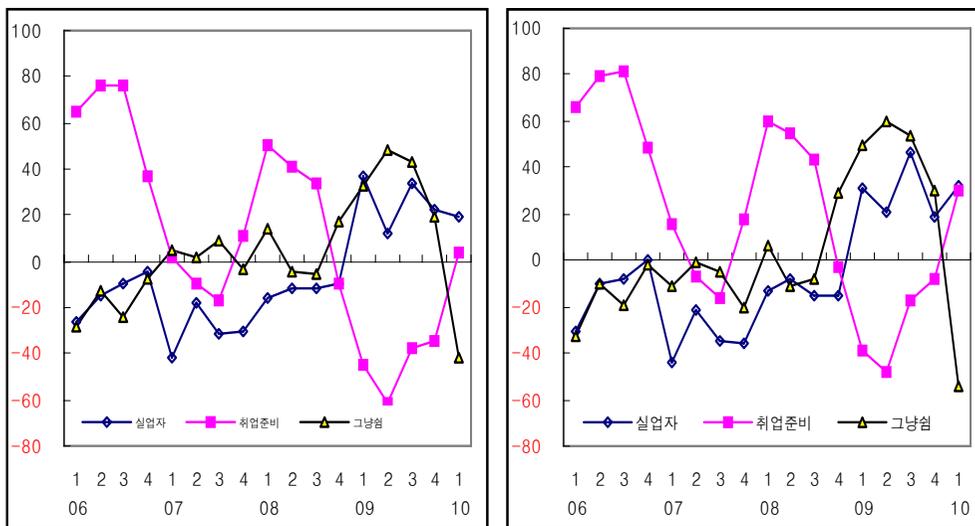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전 체	2,355 (100.0)	2,397 (100.0)	2,395 (100.0)	2,362 (100.0)	2,389 (100.0)	2,474 (100.0)	2,354 (100.0)
육아·가사	496 ( 21.0)	470 ( 19.6)	459 ( 19.2)	511 ( 21.6)	465 ( 19.5)	476 ( 19.3)	442 ( 18.8)
재학·학업	1,137 ( 48.3)	1,166 ( 48.6)	1,156 ( 48.3)	1,120 ( 47.4)	1,132 ( 47.4)	1,190 ( 48.1)	1,132 ( 48.1)
취업준비	406 ( 17.2)	444 ( 18.5)	417 ( 17.4)	396 ( 16.8)	456 ( 19.1)	417 ( 16.9)	448 ( 19.0)
그냥 쉬	215 ( 9.1)	220 ( 9.2)	268 ( 11.2)	229 ( 9.7)	236 ( 9.9)	285 ( 11.5)	231 ( 9.8)
기타	101 ( 4.3)	98 ( 4.1)	95 ( 4.0)	107 ( 4.5)	101 ( 4.2)	105 ( 4.3)	102 ( 4.3)

주: ( )안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20대 전체(좌), 졸업/중퇴자(우))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3. 청년 일자리의 구성변화 및 특징

외환위기 이전시기부터 현재까지 기업규모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먼저, 외환위기의 충격을 직접 받았던 1998~99년에는 전체 규모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가장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대·중·소기업 모두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섰지만 300인 이상 규모는 2002년에 다시 크게 하락했다. 2003

년은 카드대란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직격탄이 가해졌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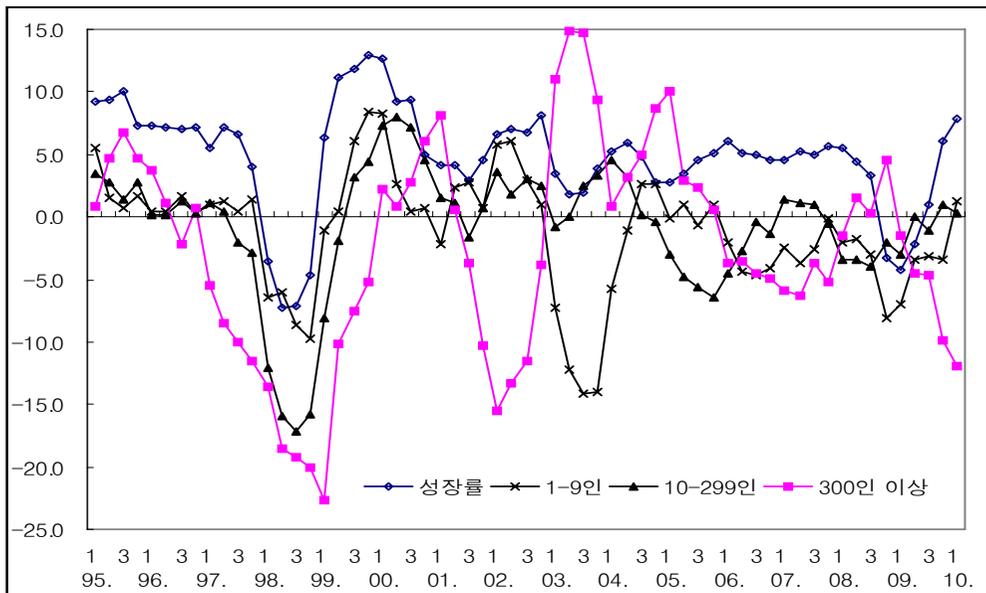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전의 외환위기나 카드대란 시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위기발생 직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선 2009년 하반기 이후에도 전 규모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하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20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에 제시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규모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전문대졸 이하(특히 전문대졸)의 학력이 20대 청년층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던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2010년 1/4분기에 감소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인 미만 규모에서의 고용 증가에 기인한다.

규모별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감소규모가 2010년 1/4분기 들어 더욱 늘어난 것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대졸 이상의

[그림 5] 기업규모별 20대 취업자 증가율 추이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



주: 임금근로자로 제한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 20대 청년층의 임금근로자 규모별 취업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 명)

		규 모					증 감				
		2006. 1/4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06. 1/4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대 전체	전 체	3,747	3,710	3,612	3,456	3,425	-138	-37	-98	-156	-30
	1~4인	684	705	670	629	648	-16	21	-35	-41	19
	5~9인	714	658	666	615	611	-14	-56	8	-52	-3
	10~99인	1,481	1,520	1,476	1,422	1,424	-100	40	-44	-54	2
	100~299인	404	390	370	368	369	10	-14	-20	-2	2
	300인 이상	463	436	430	423	373	-18	-27	-6	-6	-51
고졸 이하	전 체	1,772	1,653	1,546	1,430	1,422	-150	-119	-107	-116	-8
	1~4인	456	452	438	394	412	-35	-3	-14	-44	18
	5~9인	365	330	313	282	282	-29	-35	-18	-31	0
	10~99인	625	587	563	512	518	-70	-38	-24	-51	6
	100~299인	163	140	122	125	116	7	-23	-18	3	-9
	300인 이상	164	144	111	117	94	-24	-20	-33	7	-23
전문 대졸	전 체	1,009	1,044	1,043	984	952	10	35	-1	-59	-32
	1~4인	155	173	155	150	147	15	18	-18	-5	-3
	5~9인	217	207	204	204	181	13	-9	-3	-1	-23
	10~99인	405	441	455	422	424	-16	35	14	-33	2
	100~299인	123	120	117	93	113	2	-4	-3	-23	20
	300인 이상	109	103	112	115	87	-6	-5	9	3	-28
대졸 이상	전 체	966	1,013	1,023	1,042	1,051	3	47	10	19	9
	1~4인	74	80	77	85	89	4	7	-3	8	4
	5~9인	133	121	150	129	148	1	-12	29	-21	19
	10~99인	450	493	459	487	482	-15	42	-34	29	-5
	100~299인	118	130	131	150	140	1	12	1	19	-9
	300인 이상	191	189	207	191	191	12	-2	18	-16	1

주: 매년 1/4분기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고학력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에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취업자가 소폭 증가했다.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전문대졸은 진폭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대졸 이상은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편, 2009년 이후에는 고졸 이하의 고용률이 45%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대졸 이상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69.0%(2010년 1/4분기)를 기록했다.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서 20대



〈표 4〉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규모별 구성변화 추이

(단위 : %)

	300인 이상 규모에서 청년층 비중	청년층 전 체	규모별 구성변화 추이				
			1~4인	5~9인	1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94	35.3	100.0	35.4		49.4		15.2
1995	34.7	100.0	36.0		49.3		14.8
1996	34.8	100.0	35.9		49.0		15.2
1997	33.7	100.0	36.2		49.5		14.3
1998	29.6	100.0	37.7		48.4		13.8
1999	26.1	100.0	40.4		48.1		11.5
2000	26.9	100.0	40.8		48.2		11.0
2001	28.2	100.0	39.6		48.6		11.8
2002	24.1	100.0	41.0		49.2		9.8
2003	24.4	100.0	38.9		49.9		11.1
2004	24.2	100.0	36.6		52.2		11.2
2005	25.5	100.0	18.0	18.8	40.7	10.1	12.4
2006	24.0	100.0	18.3	19.1	39.5	10.8	12.4
2007	23.7	100.0	19.0	17.7	41.0	10.5	11.8
2008	23.0	100.0	18.6	18.4	40.9	10.2	11.9
2009	22.0	100.0	18.2	17.8	41.1	10.6	12.2
2010	19.6	100.0	18.9	17.8	41.6	10.8	10.9

주 : 1) 매년 1/4분기 기준임.

2) 1994~2004년까지 기업규모는 1~9인, 10~299인, 300인 이상으로만 묶여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5〉 20대 청년층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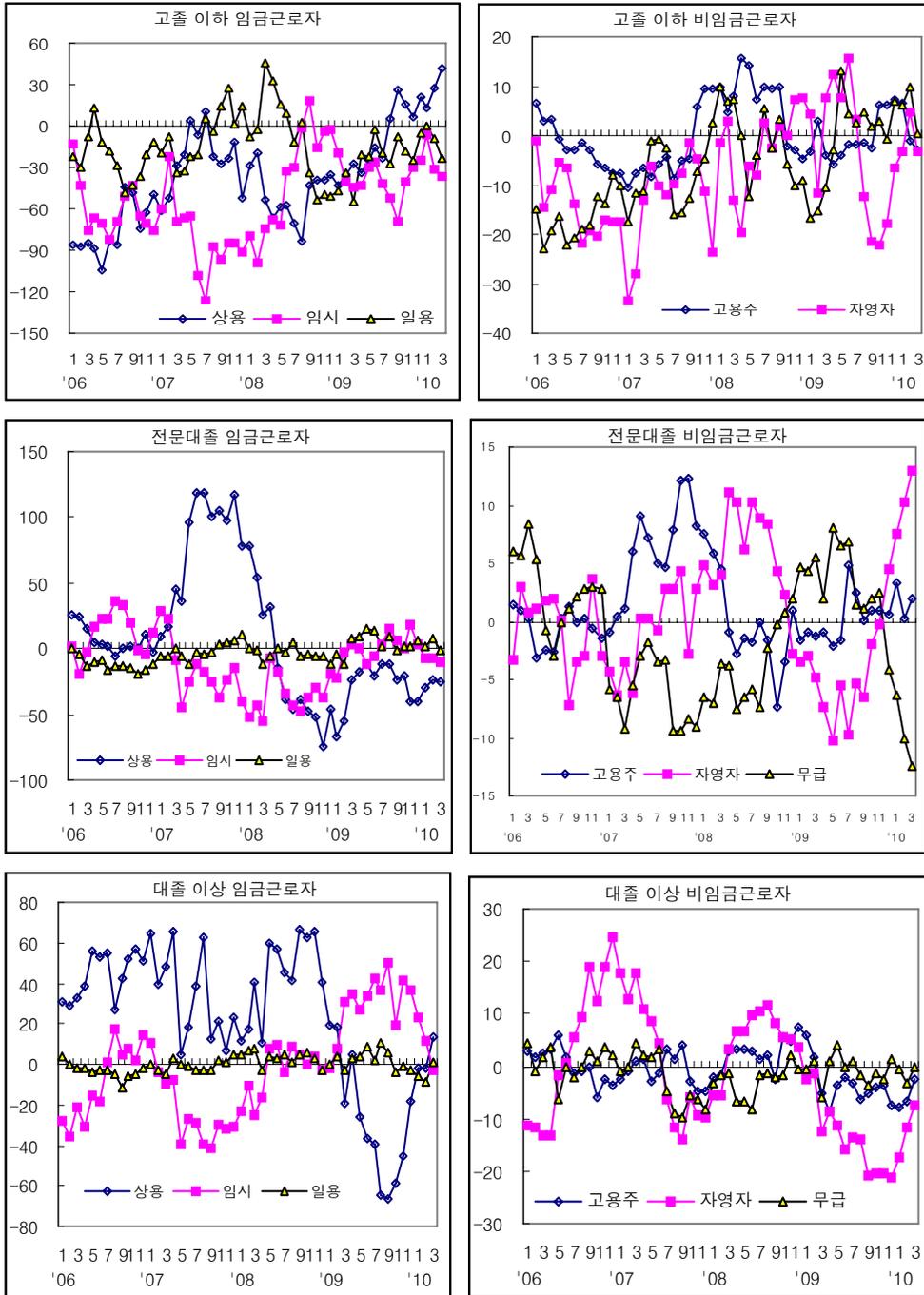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 명)

	규 모					증 감				
	2009				2010	2009				2010
	1/4	2/4	3/4	4/4	1/4	1/4	2/4	3/4	4/4	1/4
전 체	3,740	3,853	3,782	3,740	3,699	-178	-71	-114	-98	-41
임금	3,456	3,551	3,498	3,471	3,425	-156	-65	-81	-67	-30
상용	2,045	2,089	2,065	2,044	2,050	-78	-60	-69	-60	5
임시	1,160	1,189	1,179	1,201	1,138	-30	-7	-3	8	-22
일용	251	272	254	226	238	-48	2	-9	-15	-13
비임금	285	302	284	270	274	-22	-6	-33	-31	-11
고용주	43	39	41	46	40	-2	-10	-4	2	-3
자영자	161	176	160	147	159	-9	-8	-33	-35	-3
무급	81	87	82	77	76	-11	12	5	2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7] 학력별 20대 청년의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

(단위: 전년동월대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7]의 학력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추세 그래프를 통해 최근 학력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 2009년 하반기 이후 상용직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임시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졸 이하 학력의 상용직 증가는 주로 10인 미만의 규모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 사업서비스업, 보건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취업자 증가를 꾸준히 이어오던 패턴을 뒤집고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졸 상용직 감소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10~99인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금융업, 공공행정, 보건서비스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 들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반면, 대졸 이상 학력의 임시직은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10~299인의 규모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졸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기침체기의 인턴제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대졸 이상의 임시직 증가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Ⅲ. 결론 및 시사점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회복국면에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실업률은 10%에 육박할 만큼 증가했지만, 외환위기만큼 탄력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대응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간 정체상태에 있던 고용률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파르게 하락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 밖에 머물던 청년층이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나선 효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청년 노동력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감소는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선 시점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를 직업 불일치나 눈높이의 문제 등 개인의 문제로 접근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도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사례인 의무고용제나 근로시간 단

축을 통한 고용창출 및 정규직 전환프로그램 등이 국내실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적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불일치의 해소를 위한 취업 지원서비스의 강화와 기업-학교의 연계를 통한 체험프로그램 등의 적용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불일치 해소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대책이 직장정착도를 높이는 방안과 결합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전망을 갖기 어려운 일자리 혹은 미래를 설계하기 너무나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취업의 길을 넓게 열어두는 것은 곧 30대가 되어 경제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해야 할 청년들이 반복하여 불안정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중심부를 약화시켜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